



I. 서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빌립보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의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개인적으로 바울의 개인적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준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과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20번 이상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매임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하며,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의 비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 주기 원했습니다. 앞으로 14번 정도의 설교를 통해 주님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II. 본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어떤 공동체였기에 이런 기쁨을 주었을까요? 우리 한우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대부분 이익에 따라 관계가 움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사랑할 대상을 더욱 그리워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7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 합니다.(8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둘째,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합니다.(5절) 또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합니다.(7절)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함께 바라보며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보람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셋째,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고 말합니다.(4절) 그리고 직접 편지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기도 합니다.(9~11절) 사랑이 풍성하고, 지식(분별력)이 자라고, 거룩한 열매가 가득하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누군가 잘되기를 바라며 축복하며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쁨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역(사랑하고, 동역하고, 기도하는)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셨기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고 헌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에 우리도 중보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우리교회가 창립 2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비밀인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기 원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25)

QT

이번 주 QT 말씀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1/10(주일)
요일 2:28-3:10	요일 3:11-24	요일 4:1-12	요일 4:13-21	요일 5:1-12	요일 5:13-21	요일 1:1-13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한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2.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한 경험이나 사랑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3. 교회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기쁨을 누린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4.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혹은 기도를 받으며 기쁨을 누린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